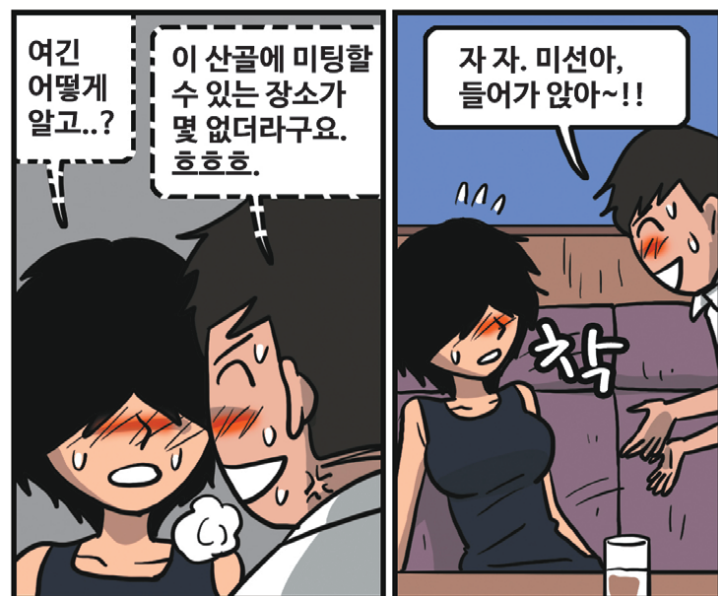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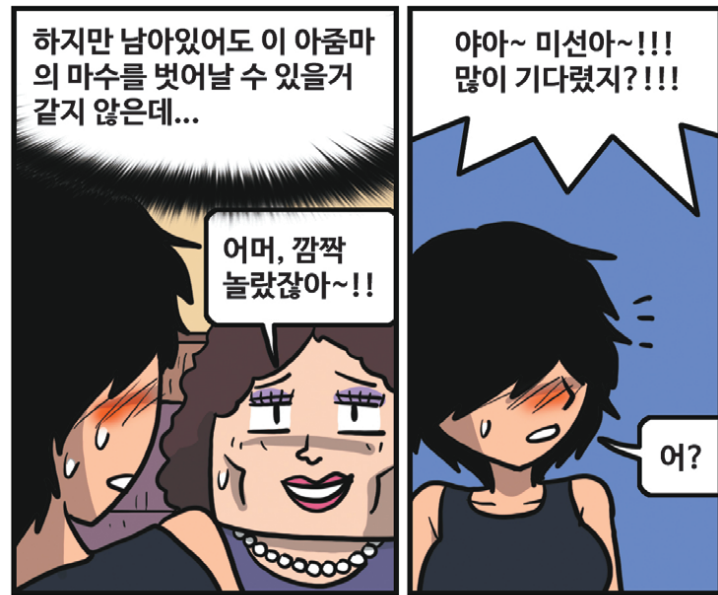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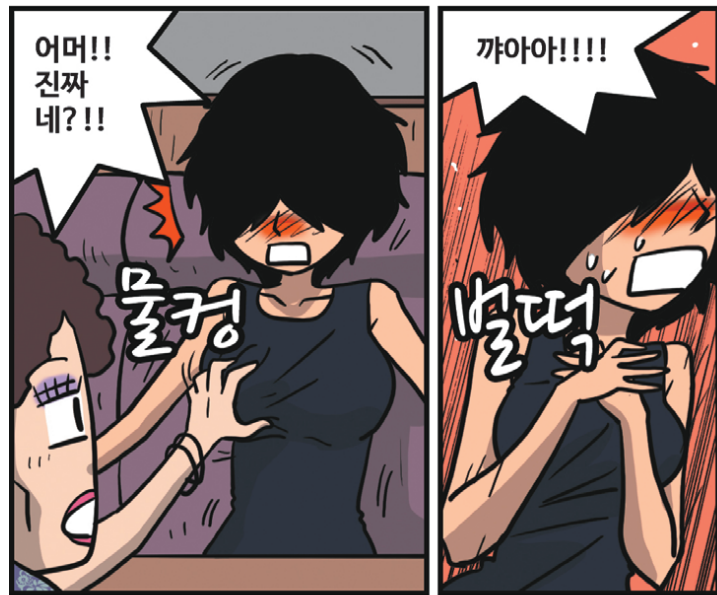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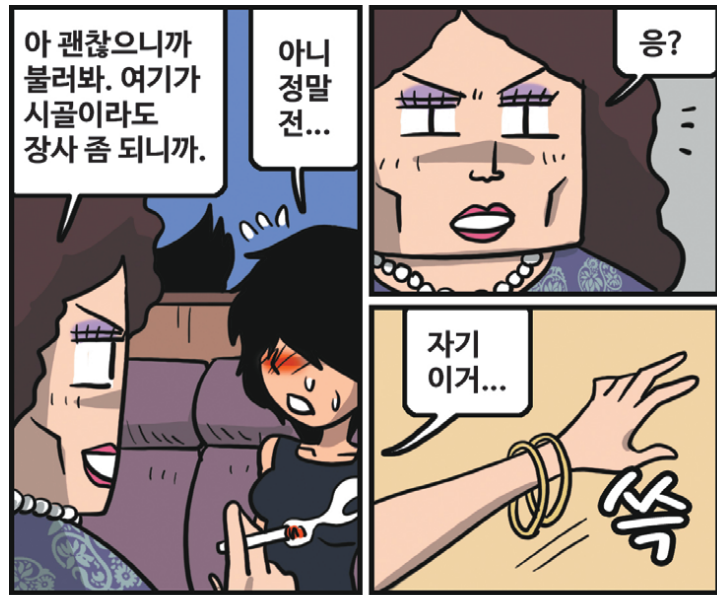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42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Book

12개 지역 근현대 유물 찾아 떠난 시간여행

●근현대사를 따라 떠난 여행 | 남민 지음 | 테마 있는 명소 펴냄

역사의 시계바늘을 10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00년 전후, 국권은 다른 강한 나라에게 빼앗겼고 서민들은 고통에 빠졌다. 문명의 이기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탈의 도구였다. 철도의 간이역이 그렇고, 호남평야를 삼킨 고리대금업 일본은행이 그렇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흔적은 상처이자 역사다. 혹자는 그 수치스러운 흔적들을 허물고 없애 버리자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울 뿐이다. 다행히 많은 흔적들이 남아 '그 날'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 존재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근현대사라고 부르는 역사 현장의 시계는 세속의 시간처럼 LTB급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멈춘 듯 잠잠한 듯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돌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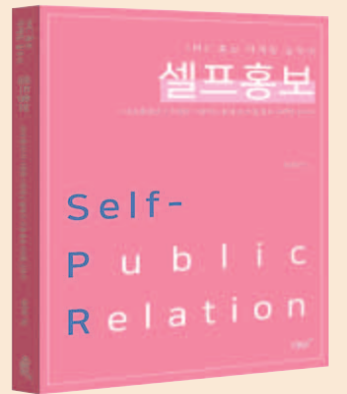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감성여행을 하고 있는 남민 작가가 잠자고 있는 근현대의 흔적을 찾아 시간여행에 나섰다. 대구 군산 인천 통영 익산 부산 서울 등 12개 지역의 근현대의 유물들이 그 대상이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의 유물들이 잘 남아 있는 군산에선 호남평야를 낀 수탈의 군산항을 중심으로 적산가옥의 이야기를, 인천에선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 현장에서 힘겹게 살았던 우리의 어린 소녀의 삶을 소개한다. 또 목포에선 일제강점기 노래까지 빼앗긴 가수의 눈물을, 창원에선 진해군항제의 탄생 비화를 들려준다. 그렇다고 우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영에선 유치환 박경리 등 걸출한 문학인들이 많이 탄생한 배경과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동피랑벽화마을의 변신의 의미를 달달하게 들려준다. 모두 12개 도시에 40개의 이야기들을 발굴해 엮었다. 역사가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도 맛깔스럽지만 책에 실린 400여장의 옛 사진과 오늘날 현장의 사진은 펍 정감 있게 다가온다. 차차 딱딱할 수 있는 역사기행을 인문지리와 문학 등 저자의 넓고 깊은 지식을 씨줄과 날줄로 잘 엮어 옛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는가. 그 대화를 엮는 맛은 구수한 송늬를 마시는 것 같다.

내가 돋보여야 회사도 산다 '셀프마케팅 실무서'

●셀프홍보 | 최승욱 저 | 지식과감성

저자는 중앙대 광고홍보학과를 나온 후 1년간 취업준비와 낙방을 거듭하다 단순히 '재밌게 보여서'라는 이유로 홍보대행사에 입사했다. 7년이 넘게 홍보를 업으로 삼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정작 자신은 스스로의 인생을 홍보하기는커녕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영혼까지 너털너털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 인생 하나도 홍보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홍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책은 주제 파악 후 쓰러진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기 위해 써 내려간 '리얼 홍보마케팅 실무서'이다. 저자는 기업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욱 가치있게 포장해 고객사, 언론,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점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홍보 AE의 핵심역할이라고 말한다. 남에게 이리저리 치이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는 힘이 필요하며, 그 힘은 바로 자신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스스로의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직장인, 아직 학생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 초년생, 직장생활에 환상을 갖고 있는 취준생에게 추천한다.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생활속 작은 노하우

●집의 즐거움 | 와타나베 유코 저·오근영 옮김 | 책읽는수요일

요리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살림 선생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의 집을 공개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생활을 위한 이야기와 화보같은 하루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로 싱글족, 신혼부부 등에게 많은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저자가 전하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즐겁게 만드는 집의 비밀은 청소와 정리정돈, 빨래와 요리, 치우기와 꾸미기, 장만하기와 고쳐 쓰기, 머물기와 보내기, 만들기과 나누기 등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규칙들이다. 거실과 부엌을 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지하는 법, 계절 과일과 꽃으로 집을 꾸미는 법, 우편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법, 오래된 가구를 새것처럼 단장하는 법, 냉장고 속 식재료를 남비없이 활용하는 법 등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생활속 노하우들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에버랜드, 9개국 수제맥주 축제

에버랜드가 10일부터 12일까지 장미축제가 열리는 장미원에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에버랜드 비어 페스트'(사진)를 개최한다. 시카고의 구스 아일랜드를 비롯해 체코 비어, 국산 제주감귤 수제맥주 제주지영 등 9개국 24개의 수제 맥주 브랜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최근 인기인 피짜(피자와 맥주)부터 버팔로링, 새우 꼬치, 수제 소시지 핫도그까지 10여 종의 안주를 즉석에서 조리해 선보인다.



손오공, 변신 카봇 '킹가이즈' 출시

국내 대표 완구전문기업 손오공이 헬로카봇 시리즈

중 최초로 육해공4단 변신 카봇 '킹가이즈'를 출시한다. '킹가이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대표하는 세 마리의 동물로 변신하는 초특급 카봇이다. 차량에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기종의2단 변신 카봇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캐릭터로 하늘의 제왕 '독수리', 백수의 제왕 '사자', 바다의 제왕 '상어'까지 다양한 동물로 변신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캐릭터에 친근감을 갖고 변신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한국배링거인겔하임, 창립 40돌 행사

한국배링거인겔하임이 인체의약품 창립40주년 및 동물의약품 창립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배링거인겔하임 박기환 대표와 한국배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서승원 영업 및 마케팅 총괄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박기환 대표는 창립기념사를 통해 "배링거인겔하임은 지난 130여년 동안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및 공급을 위해 노력해 온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 기업"이

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국배링거인겔하임은 1976년 설립된 이래 인체의약품 설립30주년인 2006년에 매출 1000억원을 달성했으며 2015년에는 2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44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44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사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30일까지로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5K |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은 매력 찾기'로 한국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5가지 키워드, K-FOOD, K-WAVE, K-SPRIT



IT, K-PLACE, K-STYLE를 테마로 한 사진이다. 대상은 대통령상과 상금 500만원, 금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대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부문 특별상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알림)공모전)관광사진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콩 용선축제 10일 개막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홍콩의 대표적인 해양축제 용선축제(사진)가 10일 개막한다. '투엔(Tuen Ng) 축제'로 불리는 용선 축제는 매년 음력 5월 5일 홍콩 전역의 해안가에서 열린다. 10m 길



이의 용모양이 새겨진 배에 12~22명의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경주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노블'도 올해 12인승 남녀혼성팀 경주에 출전한다.

대한항공, 세계 최대 엔진테스트 시설 완공

대한항공과 글로벌 엔진제조사 프랫 앤 휘트니의 합작법인 아이에이티는 8일 인천광역시 윤북동에서 항공엔진테스트시설 완공 기념행사를 열었다. 아이에이티는 항공기 엔진의 분해·조립·부품수리 및 성능시험 등의 엔진 관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상용항공기 엔진 전문수리업체(MRO)다. 이번에 설립한 인천 항공엔진테스트시설은 세계 최대인 가로 14m, 세로 14m로, 최대 15만파운드급의 엔진까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대한항공과 아이에이티는 항공엔진 정비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엔진 정비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